

손흥민의 LAFC, SNS 팔로워 증가율 9위...최고 인기팀은 레알

등록 2026.05.30 16:50:23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LA FC 손흥민이 2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4강 1차전 톨루카(멕시코)와 경기 중 공을 몰고 있다. 손흥민은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4.30.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4)의 소속팀인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증가율 9위를 기록했다.

지난 28일(한국 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CIES)가 발표한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LAFC는 48%의 팔로워 증가율로 해당 부문 9위에 이름을 올렸다.

CIES는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들'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유튜브 등에서 팔로워 합산 수로 각종 순위를 발표했다.

지난해 여름 손흥민을 품은 LAFC는 약 273만명에서 약 405만명으로 48%가 늘어 증가율 9위를 기록했다.

1위는 약 25만명에서 약 113만명까지 늘어 증가율 356%를 기록한 보되/글림트(노르웨이)의 몫이었다.

보되/글림트는 2025~20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구단 창단 최초로 16강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마드리드=AP/뉴시스] 레알 마드리드의 킬리안 음바페(왼쪽)가 21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타디오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5-26 라리가 33라운드 알라베스와 경기 전반 30분 선제골을 넣고 동료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골을 묶어 2-1로 승리하며 리그 2위를 유지했다. 2026.04.22.

한편 5개 플랫폼을 합쳐 팔로워가 가장 많은 최고 인기 구단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차지했다.

레알은 약 4억88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했다.

'영원한 라이벌' FC바르셀로나(스페인)는 약 4억4200만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홍명보호 에이스 이강인(25)의 현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은 약 2억800만명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뮌헨=AP/뉴스시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오른쪽)가 16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동료들과 함께 2025-26 분데스리가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이미 우승을 확정했던 뮌헨은 최종전 34라운드에서 FC 쾰른을 5-1로 대파하며 유종의미를 거뒀고 부상 중이던 김민재는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2026.05.17.

한국 대표팀 핵심 수비수 김민재(30)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약 1억65000만명으로 8위에 랭크됐다.

특히 뮌헨은 지난 1년(2025년6월~2026년5월) 동안 팔로워가 전년 대비 약 1610만명이 늘어, 11%에 가까운 증가율로 인기 톱10 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